

순천대,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신규과제 13개 선정

3~6년간 총 30억 원 지원받아 활발한 기초연구 수행

순천대학교(총장 김영진)가 최근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창의도전,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 학자)'에 13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2020년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은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창의·도전 연구 및 지역·보호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순천대는 이 사업에 총 23개 과제를 신청했는데, 이 중 1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연구과제적으로는 ▲학문균형발전(보호연

구) 분야에 1개(연구책임자: 환경교육과 허재선 교수) ▲지역대학우수과 학자지원 분야에 7개(연구책임자: 웰빙지원학과 백소현 교수, 원예학과 박종인 교수, 동물자원학과 이상석 교수, 약학과 박애경 교수, 장동조 교수,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심준보 교수, 환경공학과 이현 교수) ▲학문균형(창의도전) 분야에 5개(연구책임자: 약학과 이현성 박사, 생물환경학과 강세원

박사, 동물자원학과 로벨리아 박사, 인쇄전자공학과 한수철 박사, 전기공학과 고재섭 박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의 연구책임자들은 향후 3~6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받아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창의·도전 연구 및 지역·보호 분야 등에서 활발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순천대 허재선 산학협력단장은 "순천대의 사업 선정률이 56%로 유사 규모 타 대학에 비해 높은 것은 교수진과 비전임교원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입증한 결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선정 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창의성 높은 개인 연구와 기초 연구 능력을 배양해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조선대, 첨단에너지공학과 · 인공지능공학과 신설

정원 100명 증원... 미래 핵심산업 인재 양성 총력

조선대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와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16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대는 미래 핵심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공과대학) ▲인공지능공학과(IT융합대학) 등 2개의 신설학과(부)를 건의했고, 교육부 심사를 거쳐 최근 승인받았다. 각 학과당 정원은 50명이며, 대학 정원에서는 총 100명의 증원된다.

첨단에너지공학과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 지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와 고부가가치의 미래 자원을 연구하는 학과다. 첨단에너지공학과와 교육과정은 미래 자원 원료 소재의 기초 특성과 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학적 적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다룬다. 조선대학교 첨단에너지공학과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저감 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이끌어가는 호남 경제권에 우수한 인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공학과는 인공지능(AI) 집중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의융합형 인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교

육과정이 편성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인공지능(AI) 경제 효과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산업을 혁신하는 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광역시)에 구축되는 만큼 조선대학교의 인공지능공학과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에너지공학과와 인공지능공학과는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가 이번 첨단학과 신설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정에너지·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원활히 수급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는 지난 16일 광주 남구청 교육지원과 등 연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광주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나선다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회의 사업계획·실질적 지원안 논의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는(센터장 임형택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 2020년도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사업목표 계획 및 고위기 청소년 사례 공유,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남구청 교육지원과를 비롯해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광주보호관찰소,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진여자고등학교, 시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연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됐다.

전남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적 토대 마련

관련 조례 개정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체계적 운영' 규정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에 따르면, 6월 17일(수) 전라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 학생 대표를 추가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단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민주주의의 진단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첫 번째 역점과제로 정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개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중심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하반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인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 학교 별로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의 학생들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며,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전남의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교육청, 특성화고 다문화 학생 특별전형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곡동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특성화고 다문화 학생 특별전형 설명회'를 지난 16일 실시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역사와 함께 한 이날 설명회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알리셰르 한국주재사무소장, 특성화고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어 사용 가정의 중학생 및 학부모 30여 명이 모였다. 설명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특별전형 입시요강 및 운영 방안 안내 ▲승의과학기술고와 동일미

래과학교의 학교 및 교육과정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속에 학교별 수업내용 및 졸업 후 취업처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한편 '특성화고 다문화학생 특별전형'은 다문화 학생들이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러시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